

2010학년도 의·치위학교육입문검사

제 1 교시

언어추론

계열 공통

성명 :

수험 번호 :

홀수형

1

-
-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문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항을 미리 볼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수험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은 홀수형 문제지로, 짝수인 수험생은 짝수형 문제지로 응시해야 합니다. 문제지가 자신에게 맞는 문형인지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는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시작되면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와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지 우측에 있는 '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시험 시간은 09:00~10:30 (90분) 입니다.
 - 이 문제지는 검사 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 안의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택하여도 문장이 성립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 그는 술을 {자제(自制)/자중(自重)}했다.
 - ㉡ 그는 책무를 {유기(遺棄)/방기(放棄)}했다.
 - ㉢ 그는 외부에 기밀을 {누출(漏出)/누설(漏泄)}했다.
 - ㉣ 그는 새 기술 개발에 {진력(盡力)/전력(專力)}했다.
 - ㉤ 그는 정부에 규제 개혁을 {촉구(促求)/촉진(促進)}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2.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생명 과학자는 연구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윤리적인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 ② 현대인의 식생활은 원시인처럼 단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무것이나 먹는 것이 아니라 맛과 영양과 위생을 고려해서 음식물을 섭취한다.
- ③ 흡연은 각종 호흡기 계통 질환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 ④ 과학의 발달로 새로운 인류의 문명이 전기를 맞으면서 21세기가 희망의 세기로 오직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의 여부는 인류의 자기 제어 능력에 달려 있다.
- ⑤ 오늘날의 과학 기술 문명이 인류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의 편리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여러 가지 윤리 문제가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3. 밑줄 친 단어가 의미에 맞게 쓰인 것은?

- ① 장작을 더 넣자 불이 활활 사위어 흥을 더해 주었다.
- ② 나와 김 씨는 오래전부터 친한 이웃처럼 척지고 산다.
- ③ 길동이는 곧살곶게도 동생의 과자를 다 빼앗아 먹었다.
- ④ 어머니는 막 잠든 딸이 깰까 저어하여 소곤소곤 말했다.
- ⑤ 그는 올해 아무리 낮잡아도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4. 다음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예이다. 이를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신라	Silla	종로	Jongno
㉡	무리	muri	찰밥	chalbap
㉢	찌개	jjigae	백제	Baekje
㉣	집현전	Jiphyeonjeon	눅히다	nupida
㉤	시국	siguk	속담	sokdam

- ① ㉠을 보니, 한글의 자모와 그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로마자를 표기하는군.
- ② ㉡를 보니, 'ㄹ'은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와 자음이 오는 경우에서 다른 로마자로 표기하는군.
- ③ ㉢를 보니, 원래부터 된소리인 것과 된소리가 아니었던 것이 된소리화한 것은 서로 다르게 표기하는군.
- ④ ㉣를 보니, 한글 자모의 배열이 같고 발음 현상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로마자로 표기하는군.
- ⑤ ㉤를 보니, 단어 맨 뒤에 오는 'ㄱ'은 뒤에 자음이 오는 'ㄱ'과는 같은 로마자로, 뒤에 모음이 오는 'ㄱ'과는 다른 로마자로 표기하는군.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왕이 홍화문에 나아가 대소 신료와 유생 및 서민들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태평하다고 하였다. 지금 나라의 근본이 과연 튼튼하다고 이를 수 있는가? 백성들이 편하다고 이를 수 있는가? 양민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임금의 되어 구제해 주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백성의 어버이라 하겠는가? 과인이 즉위한 지 30년이 되는 동안 익히 ㉠ 폐단을 알면서도 손을 쓰지 못한 것이 어찌 백성을 소홀히 여겨서였겠는가? 법을 고침에는 반드시 폐단이 따르게 되고, 또 오래된 법만 못하게 되기가 쉽기 때문이었다.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대책을 강구하게 했더니, 제시된 안의 하나는 가호를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호포(戶布)요, 하나는 전답에 세금을 매겨 거두는 결포(結布)이다. 결포는 징수가 간편할 것 같기는 하나, 세를 더 얹는 인상을 준다. 이에 호포를 거두는 것으로 하되, 시행은 호포를 호전(戶錢)으로 바꾸어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둘은 근원이 하나이니, 납부하기 편한 쪽을 택하려는 것이다. 너희들은 각자 소회를 다 말하라.”

또 유생들을 불러 특별히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유생에게 호전을 부과하는 것을 불가하다 하지만, 위로 삼공(三公)에서부터 아래로 선비와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부역은 고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너희들 처지에서 백성을 볼 때에는 구별이 있을지 모르나, 과인이 볼 때에는 모두 나의 적자(赤子)이니, 어찌 애증이 다를 수 있겠는가? 내가 만일 왕이 되지 않고 사저에 있었다면, 나 역시 호전을 내야 하는 것이다. 한집에서 노비나 주인이 똑같이 호전을 내는 것은 명분을 문란케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호가 있으면 역(役)이 있는 것이 상례이다. 또 양민은 오래도록 고역에 시달려 왔기에 부역을 고르게 하고자 한다. 과인이 이미 군포 한 필을 감하겠노라고 말을 하였으니, 어떻게 약속을 지키지 않겠는가?”

이에 유생 이봉령이 아뢰었다.

“호포와 결포가 모두 ㉡ 폐단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역질이 돌고 있으니 성상께서는 의당 애처로운 마음으로 더 돌보아야 하실 터인데, 도리어 온 백성을 전에 없던 새로운 역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성상의 뜻은 비록 백골징포를 없애려 하시지만 차후의 폐단은 자못 더 심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규응 역시 “호전의 폐단은 앞으로 양인의 균역보다 더 심할 것이니, ㉢ 작은 폐단을 고치려다 ㉣ 큰 폐단을 낳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 하였고, 정양원도 “호전은 심히 불편합니다. 여러 궁가(宮家)에서 받는 경비를 억제하고 쓸데없는 잡비를 없애며 하릴없이 포를 축내는 군관(軍官)을 도태시키고 토지 대장에 빠져 있는 전답을 찾아내는 것이 변통의 대책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이서는 “송의 청묘법은 천하에 돈을 뿌렸다가 일시에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돈 가치가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였는데, 이번의 호전은 그 폐단이 청묘법보다 더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며, 다른 유생들도 일제히 호전은 시행할 것이 못 된다고 아뢰었다.

왕이 인근 방(坊)에 사는 서민들에게 들어와서 소회를 말하라고 하시니, 호전이 편하다고 하는 자가 많았다.

왕이 다시 신료들을 부르셨다.

이보혁이 “호전이든 결포든 모두 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축되는 배의 수량은 어염세 등의 수입으로 충당하면 됩니다.”라고

하였고, 김상직은 “호전은 행할 수 없으니, 결전(結錢)으로 바꾸어 주소서.”라고 하였다. 조명리와 김선행, 김문행 등도 같은 내용으로 아뢰었으나, 유독 사간 윤광찬만은 내수사(內需司)를 혁파할 것을 청하였다.

왕이 말씀하시기를, “윤광찬이 내수사의 혁파를 청하였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랴마는 난처한 바가 있다.”라고 하니, 우의정 정우량이 “사간의 소청을 대신은 마땅히 시행하자고 청해야 하겠으나, 내수사가 없어지면 거기에 소속되었던 사람 역시 갈 곳이 없으므로 반드시 다른 구멍을 뚫을 염려가 있으니, 이 점이 민망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사관(史官)은 평한다. “임금이 쥬문에 임하여 ㉤ 폐단을 바로잡을 대책을 널리 물었으나, 신하들 가운데 누구도 묘책을 내어 걱정을 덜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오직 윤광찬만이 내탕(內帑)의 혁파를 청하였다. 내탕은 대궐의 사사로운 비용을 맡은 곳이다. 이렇듯 크게 변통할 때를 당하여 해당 관청에 맡겨 그리 시행하게 했다면 성덕의 사심 없음을 보일 수 있었을 텐데, 대신이라는 자가 혁파를 청하기는커녕 도리어 소속된 자들의 돌아갈 곳 없음을 말하였다. 대신이 이러하니 어떻게 나라 일을 도모하겠는가? 균역이란 동쪽에서 쪼개서 서쪽에 보태 주는 것인데, 근본은 버리고 끝만 취하여 경장(更張)의 이름만 있고 실속이 없어 돌아서기도 전에 폐단이 매우 컸으니, 슬픈 일이다.”

5. 위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왕은 양반에게도 호전을 물리는 사안과 관련하여 서민에게까지 직접 의견을 묻는다.
- ② 신료들 가운데 일부는 호별 징세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지만, 그에 반대하는 자도 많다.
- ③ 서민들은 군포를 부담하지 않으리라는 기대 속에 호전제 시행에 찬성하는 자가 많다.
- ④ 유생들은 호전제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신분 질서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 ⑤ 사관은 내수사 혁파를 통해 왕실에서 먼저 자기희생을 보여 주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6. 호전제에 반대하는 측에서 내세우는 대안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동전 대신 현물 화폐인 포로 거두자.
- ② 토지를 다시 조사하여 세수를 늘리자.
- ③ 노비에게도 역을 지워 포를 거두도록 하자.
- ④ 어염세를 줄여 백성이 세금을 덜 내도록 하자.
- ⑤ 청묘법을 고쳐서 시행하여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이자.

7.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은 기존의 폐단으로, 지칭하는 내용은 ㉡과 같다.
- ② ㉡이 지칭하는 내용 속에는 ㉢과 ㉣이 모두 포괄된다.
- ③ ㉢은 토지에 세금이 집중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의미한다.
- ④ ㉣은 균역의 부과가 고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을 뜻한다.
- ⑤ ㉤은 향후 발생할 폐단으로, 지칭하는 내용은 ㉡과 같다.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학적 해석은 법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확정하는 것이지,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문헌학적 해석과 비교할 때 분명해진다. 문헌학적 해석은 인식된 것에 대한 인식이다. 이것은 텍스트 생산자가 주관적으로 의도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며, 해석의 대상인 작품의 밑바닥에 존재하는, 현실적 인간이 현실에서 생각한 사상을 확정하려 한다. 이를 위해 작가의 작품과 원고, 일기와 편지 등에서 나타나는 모든 표현들에 근거하여 그의 실제 사상을 탐구한다. 이는 순수하게 경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법학적 해석은 법률 제정자가 의도한 의미를 확정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법규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법률이라는 작품에는 다수의 제정자가 관여한다.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하여 관여자마다 갖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의 적용에 봉사해야 하는 법학적 해석은 일의적(一義的)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의 의사라 할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는 이념적으로 법률의 의사와 일치한다. 이는 입법의 모든 내용이 의인화된 단일 의식 속에 반영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 입법자의 의사는 해석의 수단이 아니라 해석의 목표이자 해석의 결과로 된다. 또한 전 법질서를 체계적으로 모순 없이 해석해야 하는 선형적 요청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법률 제정자가 미처 의식하지 못한 것도 입법자의 의사라고 확정할 수 있다. 해석자는 법률을 그 제정자가 이해한 것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 제정자의 사상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언제나 명확하고 모순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해석자는 온갖 법률 사건에 대하여 명료하게 모순 없는 해결을 법체계에서 끌어내어야 한다. 법학적 해석을 통해 해석자는 자기가 입법자였다면 제정하였을 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처럼 법학적 해석은 문헌학적 해석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것을 초월한다. 결국 법률을 실제로 제정하는 경험적 입법자는 법률 자체 속에서만 사는 이념적 입법자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 재판은 이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겠는데, 특히 법률에 대한 위헌성 심사가 그러하다. ㉡ 다음의 사례를 들어 살펴볼 수 있다.

A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만화의 주인공인 청소년이 전신을 노출하는 그림을 게시하였는데, 검찰은 이 그림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소하였다. 이 규정은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청소년’이 실제의 청소년을 뜻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청소년이 등장하여’라는 부분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라는 구절까지 연결되는 것으로도 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도 읽힐 수 있다. 곧, 다의적(多義的) 해석의 여지가 있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위헌 규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법률의 제안 이유서를 확인하였다. 거기에는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가 사회 문제로 되면서 특별히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라 표현되어 있다. 이에 표현물에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입법 시에

전제하였다고 파악하였다. 더구나 위 법률은 다른 규정에서 대상 청소년이나 피해 청소년의 신상 유출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또한 법률안 초안에서는 위 조항의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다음에 ‘그림’이라는 낱말이 붙어 있다가 최종안에서는 배제되었다. 이로써 그림, 만화 등의 음란물은 일반 형법상의 규정으로 규제하려는 것이 제정자의 태도라고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식으로 입법 경과, 입법 목적, 다른 규정들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뒤, 결론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실제 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법률 적용 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8.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 ① 문헌학적 해석은 법률 제정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 ② 문헌학적 해석은 주관적인 의사의 다의적인 해석을 추구한다.
- ③ 법학적 해석에서 주관적인 실제 의사는 수단이라기보다 목적이다.
- ④ 법학적 해석은 텍스트 배후의 은유적 의미를 찾아내는 데 주력한다.
- ⑤ 법학적 해석은 문헌학적 해석을 넘어서서 직관적으로 타당한 의미를 모색한다.

9. ㉠에 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헌 법률 심사 과정은 이념적 입법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작업이다.
- ② 입법자의 의사는 법률을 탄생시키는 일회적인 과정으로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
- ③ 입법에 참여한 전원이 의견을 같이한 경우 그것은 입법자의 의사로 보아야 한다.
- ④ 법학적 해석을 통해 끌어내는 입법자의 의사는 법체계에서 요구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 ⑤ 입법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입법자의 의사는 확정될 수 있다.

10.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례의 조항을 실제 인물이 아닌 그림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법원이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헌법재판소는 보았다.
- ② 법률 해석의 결과로 A 씨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 ③ 검찰이 ‘청소년이 등장하여’라는 부분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와 연결된다고 해석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파악하였다.
- ④ 사례의 조항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성인의 노출이라도 그것이 청소년의 수치심 유발을 의도한 경우에는 그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 ⑤ 헌법재판소가 사례의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란 표현은 모호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만화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된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임계 현상은 물리적 시스템이 외부 환경 요인의 변화에 의해 질서와 무질서 사이에서 또는 한 질서와 다른 질서 사이에서 전이하는 과정에 나타난다. 자성체에서 발생하는 ‘마크하우젠 효과’는 임계 현상의 좋은 예로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이론적 모델들이 제안되어 왔다. 마크하우젠은 자석을 코일에 삽입한 상태에서 외부에서 자기장을 변화시키며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자석에서 발생하는 자속 변화가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를 일으켜 자석을 감싼 코일에 유도 기전력을 생성시킨다. 이 경우 코일에 삽입된 자석이 없을 때와는 달리, 연속적인 외부 자기장 변화에 대해 불규칙하며 갑작스럽게 유도 전류가 나타나는데 이 현상을 마크하우젠 효과라 한다.

어떤 원소의 자기적 성질은 그 원자의 전자 스핀으로 결정된다. 스핀은 양자 역학적으로 설명되는 전자의 고유한 양으로서 자성의 근본 요소라 할 수 있다. 철, 코발트, 니켈과 같은 강한 자성을 띠 수 있는 원소의 경우 스핀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집단적으로 정렬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외부에서 강한 자기장을 가해 주면 스핀은 초기 상태를 벗어나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하여 높은 질서도의 상태가 된다. 만일 가해지는 자기장이 초기 정렬 상태의 역방향이 되면 스핀의 정렬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며 다시 높은 질서도의 상태가 된다. 이때, 스핀의 방향 전환은 개별 스핀 단위로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같은 스핀 방향을 갖는 군집 영역인 자기 구역(magnetic domain)을 형성하며 진행된다. 어떤 크기의 자기장이 가해지면 자기 구역이 불규칙하게 거동하면서 마크하우젠 효과가 나타난다. 마크하우젠 효과가 관찰될 때 가해지는 자기장을 임계 자기장이라 한다.

불규칙한 군집형 요동은 임계 현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이 불규칙성 때문에 임계 현상을 보이는 시스템의 동적 특성은 해석적 방법으로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통계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임계 현상에서는 상호 작용이 유효하게 미치는 거리가 시스템의 중요한 동적 요소이며, 이 거리를 상관 길이라 한다. 통계 물리학 이론에 의하면, 마크하우젠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상관 길이가 극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스핀 간 상호 작용에 의해 자기 구역이 형성되므로, 마크하우젠 효과에서 상관 길이는 대략 자기 구역의 크기로 볼 수 있다. 상관 길이의 극적 증가는 일부 스핀의 변화가 이웃한 영역에서부터 시스템의 전 영역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의 정보가 시스템 전체에 퍼지는 상황에서는 시스템을 지배하는 상호 작용의 영역 범위를 특별히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상관 길이의 척도를 규정할 수 없게 된다. 상관 길이의 척도가 없어짐으로 인해 임계 현상의 통계적 특성이 시스템의 미시적 특징보다는 차원이나 대칭성과 같은 시스템의 거시적 특징에 의존하게 된다. 척도가 없는 분포는 멱의 법칙*으로 표현된다. 최근 마크하우젠 효과에서 나타나는 자기 구역 요동의 통계적 분포가 멱의 법칙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마크하우젠 효과를 비롯한 여러 증거를 통해 임계 현상에서 발생하는 물리 현상은 멱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마그마가 바위로 굳을 때, 금속이 자석이 될 때, 또는 도체가 초전도체로 전이할 때도 동일 형태의 멱의 법칙이 등장한다. 즉 물리계가 다르더라도 임계 현상이 발생하면 매우 보편적인 동적 특성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멱의 법칙을 발생시키는 자기 조직화(self organization) 메커니즘이 대부분의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시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멱의 법칙에 대한 증거는 물리계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 사려는 세력과 팔려가는 세력이 충돌하는 주식 시장, 두 지각판 사이에 압력이 쌓이고 해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진, 생체의 복잡한 세포 네트워크,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간의 연결 분포 등과 같이 자연과 사회의 여러 영역에 걸쳐 숨겨져 있던 멱의 법칙이 발견되고 있다.

* 멱의 법칙(power law): 변수의 거듭제곱이 상수 지수로 표현되는 법칙.

11. ‘마크하우젠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외부 자기장을 가할 때 개별 스핀의 독립적 전이로 인해 발생한다.
- ② 패러데이 유도 기전력에 의해 관찰되며 일정한 크기의 검출값을 갖는다.
- ③ 자기 구역 거동은 멱의 법칙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실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 ④ 코발트와 같은 자성 원소에서 관찰되며 동적 특성이 해석적 방법으로 설명된다.
- ⑤ 스핀들이 정렬된 후 자기장을 역방향으로 임계 자기장의 크기만큼 가할 때 관찰된다.

12. 위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 ① 질서도의 변화가 없다면 임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자기 조직화의 거시적인 특징은 상관 길이의 척도에 의존한다.
- ③ 상호 작용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임계 현상은 유사한 동적 특성을 보인다.
- ④ 임계 현상에서 군집 영역의 전이가 없다면 요동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동적 특성을 갖는 시스템은 특정한 척도의 상호 작용을 갖는다.

13. 다음의 ㉠~㉣을 마크하우젠 효과와 대비시킨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이 끓는 현상은 ㉠ 온도 변화에 의해 ㉡ 물 분자들 사이의 결합이 약해지며 질서도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임계 현상이다. 물의 상태는 ㉢ 100℃ 1기압에서 ㉣ 액체 상태에서부터 기체 상태로 불규칙한 ㉤ 기포 발생과 함께 전이한다.

- ① ㉠-자기 조직화
- ② ㉡-스핀
- ③ ㉢-임계 자기장
- ④ ㉣-초기 스핀 정렬 상태
- ⑤ ㉤-자기 구역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99년 독일의 제약 회사가 출시한 해열 진통제 아스피린은 세포 내 효소인 사이클로옥시게네이스(COX)의 억제제이다. 아스피린은 COX에 비가역적으로 결합하여 COX가 세포막의 물질을 분해함으로써 프로스타글란딘과 트롬복산을 생성하는 것을 억제한다. COX는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거의 모든 세포에 늘 존재하는 COX-1, 평상시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면역 세포와 혈관 내피 세포에서 적절한 자극에 의하여 발현이 유도되는 COX-2, 그리고 중추 신경계에서만 발현되는 COX-3이 그것이다. COX가 활성화되면 각각의 세포는 고유의 기질과 관련 효소들에 의하여 각기 다른 물질을 생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위 점막 세포, 면역 세포, 중추 신경의 시상 하부 세포 등은 각각 점막 보호, 통증, 발열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스타글란딘 E₂를 주로 생성한다. 그리고 혈관 내피 세포는 혈액 응고 억제 작용을 보이는 프로스타글란딘 I₂를, 혈소판은 혈액 응고 유도 작용을 보이는 트롬복산 A₂를 주로 생성한다.

아스피린의 임상적인 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염증이 진행될 때 면역 세포에서 발현되는 COX-2의 활성화를 억제하여 진통 효과를, 시상 하부 COX-3의 활성화를 억제하여 해열 효과를 나타낸다. 둘째, 출혈이 발생하였을 때 활성화되는 혈소판의 COX-1을 억제하여 혈액의 응고를 억제한다. 그런데 아스피린은 비가역적으로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특히 DNA를 가지고 있지 않아 억제된 효소를 새로 생성하지 못하는 혈소판에서는 지혈 장애가 지속된다. 그러나 하루 75~350 mg 정도의 적은 용량을 투여하면 혈소판의 COX-1 활성 최고치를 줄일 뿐, 가벼운 출혈 시에는 지혈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또한 1970년대 시행된 임상 시험들은 심혈관계 환자에게 적은 용량의 아스피린을 장기간 투여하면 혈전에 의한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에 아스피린은 이들 환자에게 예방 차원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아스피린은 부작용도 가지고 있다. 위장에서 생성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은 위 점막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아스피린은 이러한 보호 기능을 줄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산성이기 때문에 위장에 자극을 주어 위산 과다와 관련된 질환을 가진 경우에 사용하기 어려웠다. 또한 류머티즘 환자와 같이 약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아스피린의 혈액 응고 억제 작용 역시 수술을 받는 환자와 혈우병 환자에게는 오히려 부작용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아스피린과 통증 억제 메커니즘은 동일하지만, 가역적으로 COX에 결합하는 이브프로펜이나 COX-2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셀레콕시브, 로페콕시브 같은 진통제들이 개발되어 시판되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과거에 아스피린은 진통, 해열 작용을 위하여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심혈관 계통 관련 환자에게 혈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요즘 아스피린의 또 다른 작용 메커니즘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암세포들이 성장할 때 증가되는 COX를 억제하여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 산화질소(NO)를 생성하여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 DNA 조절 인자 NF-κB를 억제하여 면역력을 조절하는 작용 등이 그것이다. 이는 앞으로 아스피린이 적용될 수 있는 임상 질환이 더 확장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14. 아스피린의 작용 메커니즘을 바르게 정리한 것은?

- ① 혈소판의 COX-1 억제 ⇨ 트롬복산의 생성 억제 ⇨ 통증 완화
- ② 면역 세포의 COX-2 억제 ⇨ 트롬복산의 생성 억제 ⇨ 염증 완화
- ③ 중추 신경계의 COX-2 억제 ⇨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 억제 ⇨ 발열 감소
- ④ 혈관 내피 세포의 COX-2 억제 ⇨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 억제 ⇨ 통증 완화
- ⑤ 위 점막 세포의 COX-1 억제 ⇨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 억제 ⇨ 위 점막 보호 작용 약화

15. 위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셀레콕시브는 아스피린과 통증 억제 메커니즘은 같지만, 작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 ② 이브프로펜의 임상 작용은 아스피린의 경우와 같이 세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③ 이브프로펜은 가역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스피린보다 위 점막 손상과 혈액 응고 억제 작용이 작다.
- ④ 아스피린은 저용량에서는 진통 작용과 혈액 응고 억제 작용을 보이지만 고용량에서는 혈액 응고 억제 작용만 보인다.
- ⑤ 로페콕시브는 트롬복산에 의한 혈액 응고 작용에는 영향이 없고,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한 혈액 응고 억제 작용만을 차단하여 혈액 응고를 촉진한다.

16. 위 글을 고려할 때, 다음 진료 기록부의 환자에 대한 의사의 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료 기록부	
성명	○○○ (남/40세)
진단/의증	뇌하수체 종양(양성 선종)
과거 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전 동맥 경화와 고혈압 진단 • 2년 전 류머티즘성 관절염 진단 • 현재 5년째 아스피린, 아테노롤(고혈압 치료제), 2년째 셀레콕시브 복용 중
주 증상	양안 외측 시야 결손
치료 계획	수술에 의한 종양 적출

- ① COX 억제제가 중복 처방되었으니 수술 후 처방에서 셀레콕시브를 뺀다.
- ② 동맥 경화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 후 아스피린을 다시 처방한다.
- ③ 오랜 기간 아스피린을 복용하였으니 위장 계통 검사의 필요성을 알려 준다.
- ④ 혈액 검사 결과, 지혈 작용이 회복되지 않으면 수술 전 혈소판 수혈도 고려한다.
- ⑤ 수술 시 출혈에 의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수술 전 아스피린 복용을 중지시킨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류가 수렵·채집 생활을 하다가 농경을 시작하면서 종교적 관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종교학자 엘리아데는 신화에 의해 표현되고 제의를 통해 재현되는 성스러운 패러다임 속에서 변화의 의미를 읽어 내고자 하였다.

엘리아데에 따르면, 수렵을 하면서 사냥감을 찾아내고 죽이는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 ‘죽임’이라는 행위를 통해 인간과 희생 동물 사이에 ‘신비로운 연대감’이 형성되었다. 사냥 행위의 기본적인 구조는 ‘스스로가 살기 위해 타자를 죽이는 것’이다. ‘죽여야만 산다’는 삶의 조건은 사냥꾼과 사냥감(동물) 사이의 ‘신화적 통합성’이라는 관념을 불러일으켰다. 즉, 죽은 자의 영혼은 동물에게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 특정 인간과 동물 사이에 ‘수호신 신앙’ 같은 신비로운 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는 동물의 뼈를 신성시하는 행위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냥 의례나 희생 제의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신석기 시대에 들어서 농경이 시작된 후, 동물계와 인간 사이에 존재하던 이러한 종교적 질서는 인간과 곡물 사이의 ‘신비로운 연대감’에 의해 변화를 겪었다. 무엇보다도 곡물의 씨앗이 썩어야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경험이 ‘죽음과 재생’에 대한 관념을 불러일으켰으며, ㉠ 이러한 관념은 인간의 종교적 구원 개념의 지평을 크게 확장시켰다. 아울러 여러 신화 속에 담겨진 ‘곡식이 희생된 신으로부터 생겨났다’는 관념은 ‘종교적 희생’ 개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과 여성의 성스러움이 격상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지의 풍요가 여성의 다산성(多産性)과 밀접하게 결합된 것이다. 창조의 신비를 담지하고 있는 여성이 풍작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이는 창조의 신비가 생명의 기원과 식량의 공급, 그리고 죽음까지를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지는 여성과 동일시되었으며, 나중에 ㉡ 쟁기가 사용된 이후에는 밭갈이가 성행위와 동일시되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 대지모신(大地母神)은 처녀 생식을 통해 혼자 힘으로 생명을 탄생시켰다. 그 외에도 무수한 신화와 민간 설화에서 인간이 대지로부터 탄생한다거나, 갓난아기를 대지 위에 누인다거나 하는 행동이 나타난다. ㉣ 대지에서 태어난 인간은 죽어서 어머니인 대지로 돌아간다.

구석기 시대에 여성과 모성의 신성성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농경이 시작되면서 그 힘이 놀랄 정도로 증대되었다. 성(性)생활의 성(聖)스러움은 불가해한 창조의 신비와 하나가 된다. 신과 인간이 서로에게 투사된다는 관념은 여성과 여성의 성을 달의 주기, 대지 및 식물의 신비라고 불리는 것과 연결시킨다. ㉤ 인간 존재는 식물의 생명과 동일시되어 ‘식물의 드라마’에서 따온 이미지와 비유로 표현되기도 한다.

농경의 시작으로 초래된 이런 모든 종교적 관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종교적 창조성은 농사를 짓는다는 경험적 현상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식물의 주기적 변화와 동일시되는 탄생, 죽음 그리고 재생에 의해서도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수확을 위협하는 위기들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그것들을 신화적 이야기로 각색하였다. 이 신화들과 의례 행위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인류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엘리아데는 ㉥ 세계의 주기적 갱신이라는 중심적 신비에 착안하여 소위 ‘우주적 종교’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우주의

리듬을 읽어 내고 이를 통해 인간이 처한 존재론적 정황을 더욱 의미 있게 통찰하는 작업이 수반되었다. 우주적 종교 개념은 우주의 보편적 질서와 인간의 생명력에 대한 통찰을 통해 빚어진 것이다. 그렇기에 그것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나아가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 엘리아데의 우주적 종교론의 핵심에는 우주의 신성성이라는 신비가 자리하며, 인간은 그러한 신비한 질서에 참여하면서 우주와 통합된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가 ‘우주목(宇宙木)’이다. 우주목은 세계의 중심에 있으며, 그 뿌리는 지하 세계로 뻗어 있고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다고 여겨졌다.

17.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농경이 시작되기 전에도 여성의 신성성은 알려져 있었다.
- ② 농경에 대한 경험을 통해 종교적 희생 개념의 외연이 확장되었다.
- ③ 농경의 시작으로 인해 사후의 삶에 관한 종교적 관념이 형성되었다.
- ④ 천상, 지상, 지하 세계가 연결된다는 관념이 우주목으로 표상되었다.
- ⑤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경험이 신화적 상상력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18. ㉠가 반영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리스는 황금 사과를 만들어 거기에 ‘최고의 미인에게’라는 문구를 새긴 뒤, 한창 흥겨운 연회장에 던져 놓았다. 여신들이 너도 나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 ② 하이누벨레라고 불리는 반신반인적 존재가 팔다리가 절단된 채 매장되었는데, 그 몸에서는 그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식물, 특히 알뿌리 식물들이 솟아 나왔다.
- ③ 로크는 죽어 가면서 쿠쿨레인에게 자기의 시신을 코나크트 땅에 있는 한 개울가에 묻어 달라고 부탁했다. 쿠쿨레인은 자신을 상대한 맞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었다.
- ④ 옥수수 알들이 어찌나 큼직하게 잘 자랐는지 농부가 한 번에 한 개씩밖에는 운반할 수 없을 정도였다. 면화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다양한 색깔로 채색된 채 성장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케찰코아틀의 치세를 ‘아나후악의 황금 시대’로 기억했다.
- ⑤ 점술사는 아이네아스에게 “밤의 여신에게 검은 황소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고 충고했다. 제단의 연기가 솟아오르자, 천둥이 치고 땅이 흔들렸다. 점술사가 황금 가지가 달린 나무를 가리키면서, 여행길에 나서기 전에 그 가지를 꺾으라고 충고했다.

19. ㉡~㉤ 중, ㉢의 근거가 되는 것을 고른 것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윤리학에서는 도덕적인 가치나 규범이 여타의 자연적인 사실과 동일하거나 그것으로 환원된다는 주장을 자연주의라고 한다. 자연주의는 과학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사실에서 도덕의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출간한 후, 스펜서는 진화론에서 도덕적 판단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윈의 진화론을 자기 나름으로 해석하여 어떤 행위가 더욱 진화되면 도덕적으로 더 좋은 행위라고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적자생존은 치열한 경쟁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다. 당시에는 스펜서의 주장이 최신 과학 이론을 도덕과 연결시켜 주는 훌륭한 이론처럼 보였다.

그러나 1903년 영국 철학자 무어는 사실에서 가치를 끌어내려는 모든 시도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저지른다고 비판했다. 누군가에게 “A는 A인가?”라고 물으면 그 물음은 의미가 없는, 하나 마나 한 물음일 것이다. 반면에 “A는 B인가?”라는 물음은 의미가 있다. A가 B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A는 B인가?”라는 물음도 의미가 없을 때도 있다. A와 B가 같다는 것을 누구나 알아서 그 물음이 “A는 A인가?”라는 물음과 같을 때가 그렇다. 스펜서의 주장대로 ‘더욱 진화됨’이라는 자연적 사실이 ‘ 좋음’이라는 가치와 동일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더욱 진화된 것은 좋은 것인가?”라는 물음은 하나 마나 한 물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진화된 것은 좋은 것인가?”라는 물음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물음을 들으면 “정말 그런가?”라고 되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어는 ‘더욱 진화됨’과 ‘ 좋음’이 같지 않다고 결론짓는다. 이 논변은 ‘ 좋음’을 어떤 다른 자연적 사실과 동일시하려는 모든 시도들에 적용될 것이다. 이와 같은 ㉠ 무어의 논변은 자연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받아들여졌다. 만약 무어가 옳다면 가치는 사실과 독립적이므로 진화론을 비롯한 과학은 도덕의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무어는 자연주의자들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스펜서가 ‘ 좋음’의 정의를 찾고 있다고 해석할 때는 무어의 논변이 성립한다. 그러나 스펜서는 ‘ 좋음’의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이용하여 실제로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찾는 것이다. ‘더욱 진화됨’은 ‘ 좋음’의 정의는 아니어도 그 외연이 같을 수 있다. 그러면 “더욱 진화된 것은 좋은 것인가?”라는 물음은 의미가 있어도 ‘더욱 진화됨’은 ‘ 좋음’과 동일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춘원은 춘원이다.”라는 명제와 “춘원은 이광수이다.”라는 명제를 비교해 보자. 첫 번째 명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두 번째 명제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가?”라는 의문이 생길 사람도 있다. ㉡ ‘춘원’과 ‘이광수’는 정의 관계여서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 둘이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해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 좋음’과 ‘더욱 진화됨’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무어의 반자연주의 논변이 실패함에 따라 스펜서가 해석한 진화론이 도덕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그가 다윈의 진화론을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있다. 다윈의 이론에서 진화는 특정한 목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만이 있을 뿐이지 ‘더욱 높은’ 진화의 단계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욱 진화됨’이라는 개념이 과학적으로 틀렸으므로 ‘더욱 진화됨’은 ‘ 좋음’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가) 결국 자연적 사실이 도덕적 가치와 동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애초부터 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도덕 판단을 위해 자연적 사실을 참조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연적 사실이 곧바로 도덕적 가치를 대체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 자연적 사실이 과학적으로 옳은지 검증되어야 하고 또 도덕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20. 위 글을 바탕으로 바르게 추론한 것은?

- ① 무어는 스펜서와 달리 진화론 이전의 전통적인 도덕을 지지하기 위해 진화론에 반대했다.
- ② 무어의 비판은 도덕적 가치를 특정 자연적 사실로 정의하려는 자연주의에 대해서는 성립한다.
- ③ 스펜서는 치열한 경쟁이 있는 사회는 더 진화된 사회라는 다윈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려 했다.
- ④ 무어는 어떤 두 개념이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동일한 경우와, 외연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경우의 차이를 잘 알고 있었다.
- ⑤ 스펜서가 ‘더욱 진화됨’ 대신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다른 사실을 ‘ 좋음’과 동일시한다면 자연주의적 오류의 혐의를 벗을 수 있다.

21. ㉡을 이용해서 ㉠을 비판할 때, 다음 ()에 들어갈 명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어의 논변 방식을 따르면 ()
그러므로 무어의 논변은 잘못되었다.

- ① ‘춘원이 이광수냐’고 묻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질문이므로 ‘춘원’과 ‘이광수’가 같은지 과학적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
- ② ‘춘원’과 ‘이광수’는 정의 관계가 아니므로 ‘춘원이 이광수냐’고 묻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질문이다.
- ③ ‘춘원’과 ‘이광수’는 외연이 같으므로 ‘춘원이 이광수냐’고 묻는 것은 의미가 있는 질문이 된다.
- ④ ‘춘원이 이광수냐’고 묻는 것은 의미가 있으므로 ‘춘원’과 ‘이광수’는 다른 사람이 되고 만다.
- ⑤ ‘춘원이 이광수냐’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므로 ‘춘원’과 ‘이광수’는 같은 사람이 된다.

22. (가)의 논지에 따라 다음 주장에 대응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가령 사람은 언어와 도구 등을 사용할 줄 알고 합리적이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과 동물을 차별 대우해도 괜찮다.

- ① 사람과 동물을 차별 대우해도 괜찮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므로, 사람이 언어와 도구 등을 사용할 줄 알고 합리적이라는 주장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음을 지적한다.
- ② 사람과 동물 사이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언어와 도구 등을 사용할 줄 알고 합리적임’이 ‘차별 대우해도 괜찮음’으로 환원되고 둘 사이의 외연이 같은지 조사한다.
- ③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사실에 관한 영역이고 차별은 도덕적 가치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그 차이가 과학적으로 검증되더라도 사람과 동물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 ④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해 보고 도덕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증명한다.
- 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과학적으로 검증된다면 그 차별은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생각으로부터 자연주의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사한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수화 이해의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와유(臥遊)’가 있다. 와유의 형성, 발전, 분화 과정이 바로 산수화의 역사를 이룬다. 와유는 『송서』 『은일전』에서 종병(宗炳)을 두고 “누워서 노닌다.”라고 기록한 데에서 유래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정신의 자유를 의미하는 『장자』의 ‘소요유(逍遙遊)’와 관련 있는 것이다. 종병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산수화가이자 이론가이면서 불교 수행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유학과 불학 사이에서 일어났던 육체와 정신의 관계에 대한 논쟁, 즉 형신(形神) 논쟁의 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 그는 혜원의 여산불교(廬山佛教) 영향을 받아 산수를 통해 부처의 구원을 얻고자 하였다. 그는 젊어서 유명한 산을 마음껏 유람하고 산에 투영된 영혼을 음미하면서 자신의 정신을 해방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이러한 유람을 할 수 없자, 과거에 그가 노닐었던 산을 그려 감상하면서, 인연을 만든 ‘정(情)’과 ‘식(識)’을 줄여 나가 점차적으로 정신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후대에 이 ‘와유’의 개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산수화와 관련된 다. 하나는 감상적 측면을 강조하는 직업 화가인 화원의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주체적인 창작 과정을 즐기는 문인들의 그림이다. 이러한 분화는 북송 이후 사대부들의 의식 세계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들의 의식 세계에는 사회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 두 자아는 내면적으로 서로 모순되면서도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 사회적 자아란 “나라에 도가 있으면 함께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겸제천하(兼濟天下)를 추구하고, 개인적 자아는 “나라에 도가 없어 홀로 그 몸을 닦는다.”라는 독선기신(獨善其身)을 지향한다. 사대부들은 시대 상황에 따라 겸제천하를 자신의 삶의 원리로 현실화하기도 하고, 독선기신을 삶의 가치로 수용하기도 하였다. 북송 시대에 화원화와 문인화가 등장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북송 시대 대표적 화원인 광희(郭熙)의 저서 『임천고치』에서는 화원화에 대한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광희가 살았던 시대는 태평성세였다. 사대부는 충과 효를 사회적으로 실천해야만 했다. 그 때문에 자연에서 노닐며 살고자 하는 개인적 욕망을 실현할 수 없었다. 사대부들은 화원들을 구해 자신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산수를 그리게 하였다. 화원은 사대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작품 구상을 위해 시에 의존하고, 사대부들이 작품을 통해 와유할 수 있게끔 대상의 사실적 묘사와 삼원법(三遠法)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삼원법은 상이한 시점들을 서로 교차시켜 감상자가 산수화의 ‘산수’에 들어가 자연에서 느꼈던 생생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화법이다. 또한 삼원의 ‘원(遠)’은 바로 무한의 세계로 확장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감상자는 이를 통해 산수의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무한한 곳으로 확장하여 절대적인 정신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원’을 통해 자유의 경지를 실현하면서 개인적 자아의 추구에 치우쳐 또다시 사회적 자아와 균형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사대부는 두 자아의 균형을 위해 ㉠ 산수에 사회적 가치가 투영되도록 하였다.

문인화 이론은 북송의 문인이었던 소식(蘇軾)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소식에게 문인화는 창작 행위 그 자체를 즐기는 ‘나를 위한 그림’이다. 소식은 ‘안’과 ‘뱉’의 일체, 마음과 손의 통일을 주장하면서 마음의 주체적 활동성을 강조하였다. 자연과 일체된 마음의 움직임이 손에 반응하여 필묵으로 표현되며, 이것이 작품에 반영되어 일관된 기세를 가지면서 창조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즉 사물의 외형보다 필묵의 묘미를 더 강조하는 것이다. 청나라 초기 석도(石濤)는 문인화의 창작 과정을 일획론(一畫論)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획론이란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우주 창조의 원리이면서 창작 행위의 원리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화법의 원리이기도 하다. 이 관계들에 대하여 석도는 ㉡ “획은 먹을 받고, 먹은 붓을 받고, 붓은 팔을 받고, 팔은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늘이 이치를 주재하고 땅이 그 이치를 완성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바로 ‘받는다[受]’고 한 이유이다.”라고 말하였다. 석도는 하나의 획이 마음에서 일어나 만 가지의 획으로 분화되고 그로부터 자연 형상이 묘사되는 일련의 과정을 강조한 것이다.

2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광희의 와유론은 소식에게 계승되었고 석도의 일획론에서 이론적인 완성을 이루었다.
- ② 북송 시대의 문인화는 겸재천하와 독선기신의 지향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경향으로 나뉘었다.
- ③ 문인화 이론에 따르면 그림은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붓을 놀리는 것과 대상의 정확한 묘사가 함께 구현되어야 했다.
- ④ 창작 행위 자체를 즐기기 위한 화원화는 ‘안’과 ‘밖’의 일체, 마음과 손의 통일이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기세를 중시하였다.
- ⑤ 산수를 통해 부처의 구원을 얻고자 했던 중병은 산수화를 통해 인연의 원인을 줄여 나가면서 정신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24. ㉠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 ① 석양 비긴 현산의 철쭉길 계속 지나 / 깃털로 꾸민 수레가 경포로 내려가니 / 십 리에 펼친 비단 다리고 다시 다려 / 울창한 숲 속에 끝없이 펼쳤으니 / 물결도 잔잔하여 모래를 세졌구나
- ② 행장을 다 버리고 돌길에 막대 짚어 / 백천동을 옆에 두고 만폭동으로 들어가니 /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 섞여 돌며 뿜는 소리 십 리까지 들리니 / 들을 때는 우레더니 보니까 눈이로다
- ③ 연꽃을 꽃았는 듯 백옥을 묶었는 듯 / 동해를 박차는 듯 북극을 괴고 있는 듯 / 높을지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이 /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아뢰려고 / 천만겁이 지나도록 굶힐 줄 모르는가 / 어와 너로구나 너 같은 이 또 있는가
- ④ 천 길 절벽을 공중에 세워 두고 /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 내어 / 실같이 풀어 내어 베같이 걸었으니 / 산수 도경 열두 구비가 내 보기엔 여럿이라 / 이태백 이제 있어 다시 의논하게 되면 /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을 못 하리라
- ⑤ 그대를 내 모르라 상계의 진선이라 /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서 /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느냐 / 잠시 가지 마오이 술 한 잔 먹어 보오 / 북두성 기울여 바닷물 부어 내어 / 저 먹고 날 먹이거늘 서너 잔 기울이니 / 바람이 산들산들 양 어깨 치켜드니 / 구만 리 하늘에 웬만하면 날졌구나

25. ㉡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나의 마음에서 일획을 바로 세워 창작의 원리로 삼는다.
- ② 우주 창조의 원리인 일획은 나의 마음에 간직되어 있다.
- ③ 몸과 마음의 일체가 문인화를 그리는 기본 원리이다.
- ④ 그림에 구현된 하늘의 이치를 보고 자연과 합일한다.
- ⑤ 마음과 손, 그림 사이에 간격과 쉽이 없어야 한다.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짐작은 했지만, 와서 보니, 너무 좋아요.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그동안 너무 텔레비전만 보았어요. 여성 잡지(주로 천연색 화보)하고요. 사실은 겨울 바다를 보고 싶은 마음도 텔레비전에서 암시받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사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사자는 태어날 때, 어미 배를 찢고 나온대요. 그래서 사자는 새끼를 한 번밖에 못 난대요. 바닷가에 나오고 싶은 생각은 천치상자에서 나왔는데, 막상 바닷가에 와서 보니,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 버렸어요. 지금 우린 여기서 뭔가를 직접 만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 그것이 자연인지, 삶인지, 삶 속의 신비나 경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바보상자에 가려서 간접적으로만, 그것도 뒤틀려서 나타났던 것이 눈앞에 직접 나타난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를 깨달을 겨를이 그동안 별로 없었어요. 그 속에 폭 파묻혀 있었거든요. 어떤 물건을 그 속에 있으면서 나쁘다고 생각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일 거예요.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벌써 그 속에 있지 않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바보상자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은가 봐요. 우리들은 지금 이 경치의 아름다움을 ㉡ 그것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백치상자의 추악함을 ㉢ 그것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한 사물의 미·추는 그것 자체의 미·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미·추를 바라보는 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같아요. 아무리 추악한 사물도 그 사물의 눈으로 바라보면 추악할 수가 없고, 아무리 아름다운 사물도 그 사물의 눈이 아닌 눈으로 바라보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제 똥은 구리지 않고, 며느리의 발뒤꿈치는 계란 같아서 흉하죠. 우리들은 어젯밤 비치호텔에서 묵었어요. 비치호텔! 우리들은 그만 그 이름에 깜빡했어요. 물위에 솟아 있지 않은 한 더 이상 바닷가로 갈 수 없을 만큼 백사장 뒷길에 붙어 있으니, 물가여관은 분명 물가여관이죠. 그리고 전면이 바다로 향해 있고, 그 전면에 베란다가 삼층에까지 있으니, 바닷가여관도 목 좋은 바닷가여관이죠. 나는 거기에 투숙한 것을 백치상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저기 저 시멘트 반죽으로 발라 올린 삼 층 회색 건물들. 저건 여인숙이에요. 비치호텔은 아침 햇빛 속에서 해안여인숙으로 나타나 있었어요. 옆으로는 뒤에 다닥다닥 들어서 있는 가건물들이 내보내는 더러운 하수가 흘렀어요. 도대체 해안여관이라는 말에서 떠오르는 영상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다와 모래 말고는. 텔레비전 속의 삶이 박살이 났어요. 텔레비전은 바다와 모래의 아름다움만 제대로 보여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해안여인숙의 추악함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했어요. 해안여관만 박살이 난 것이 아니라 천치상자 자체가 박살이 났어요. 천치상자 자체가 박살이 났길래 그동안 그것에 가려서 못 보았던 것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아니, ㉢ 그것에 가려서 뭔가를 못 보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껌테기의 삶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말짱 껌테기였다는 것까지 생각이 미쳤어요. 그런데, 그 껌테기의 삶이 전혀 추악하게 비치지를 않아요. 천치상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집에 돌아가면, 아마 다시 명칭상자들을 열심히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린 그거 아니면 이야깃거리가 없고, 그거 아니면 쇼핑을 할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축에 끼일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시간을 보낼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생각을 할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여상 동창들인데요, 앤 농협 단위 조합에 나가고, 난 타자 학원 경리를 보고 있어요. 처음엔 한타 강사 노릇을 했지만, 원장의 눈에 들어서 관리직으로 옮겼어요. 강사는 노무직이거든요. 우리들은 편한 것을 좋아해요. 안방에 앉아서 등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싸움도 하고, 입원도 하고, 실연도 해요. 어찌 다 초대권이 생겨서 전람회나 운동장 같은 데를 가보면, 허리도 아프고 햇볕도 따갑고 짜증스러워요. 연애도 김이 빠져요. 흥내가 잘 안 되거든요. 우린 절대 등산 안 가요. 왜 가요, 도로 내려올 것을? 여행도 완행버스 여행은 맥 빠져요. 그렇지만 여행은 더러해요. 그리고 더러 여행이 맥 빠지는 것은 여행 탓이 아니라 여행에 대한 잘못된 바라봄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도 해요. 그러나 그 깨달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같아요. 깨달은 다음에는 안심하고 다시 텔레비전에 폭삭 빠지거든요. 불이 났을 때 물을 조금 부으면 소리를 내면서 더 잘 타는 거 있죠? 과음으로 위장을 상한 사람이 의사한테 빨리 병을 고쳐 달라드래요. 다시 술 마시게요. 약을 조금 고치는 것은 그 약을 고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약을 조금 고치는 것은 그 약을 오래가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들은 지금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어요. 적금도 하고, 계도하고요. 그게 거의 우리들의 유일한 즐거움이에요. 명청상자가 보여 주는 모든 좋은 물건들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사치와 편의와 편리뿐만 아니라, 미덕과 선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명청상자는 무슨 운동, 무슨 운동 해서, 좋은 일 하지는 운동까지도 무슨 협찬, 무슨 협찬 해서, 돈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은 많은 전구들을 빼뜩거리고 연기를 피우고 물방울들을 수없이 날려서 우리들의 눈을 어지럽게 하는 이 휘황찬란한 착각으로부터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 그것은 불편하고 귀찮고 괴로워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바다로 산책도 나오고, 이름난 명승지도 찾아서, 그 착각으로부터 조금씩 깨어나요. ㉡ 그것을 오래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 서정인, 달궁 -

26. 위 글의 화자, 바닷가, 텔레비전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텔레비전이 있는 안방을 떠나서 직접 바닷가를 찾아왔지만 화자의 머릿속에서는 텔레비전이 떠나지 않는다.
- ② 왜곡된 이미지에 현혹된 상황을 텔레비전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화자에게 텔레비전은 추악하게 보인다.
- ③ 화자에게 텔레비전은 바닷가를 찾아오게 만든 조건이면서 바닷가를 그 자체로 볼 수 없게 하는 인식의 장애물이다.
- ④ 바닷가의 비루한 풍경을 경험한 화자는 텔레비전의 세계로 되돌아가겠지만 앞으로는 바닷가를 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텔레비전 시청을 통해 직접적 경험을 대체해 온 화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닷가를 직접 찾은 것은 이례적인 경험에 해당한다.

27. ㉠~㉡ 중, ㉠로 나아가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28. 위 글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사회는 비판적 성찰을 체제 내부에 귀속시켜 오히려 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 ②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점진적인 교정을 통해서 광범위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③ 현대 사회의 대중 매체는 욕망의 매개항이며 사람들의 욕망은 기호와 이미지의 흐름을 좇아서 움직여 나간다.
- ④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일시적인 자각은, 역설적으로 현대 사회가 제공하는 안락함을 지속적으로 누리는데 도움이 된다.
- ⑤ 현대 사회에서 이미지의 축조는 '해안여인숙'에서 '바닷가여관'으로 다시 '비치호텔'로 그 호명 방식을 바꾸는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술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누구나 알고 있는 대답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술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은 인간 행위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런데 기술에 대한 이러한 도구적이고 인간학적인 정의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술의 본질을 밝혀 주지는 못한다. 이것은 '시(詩)란 단어들의 집합이다.'라는 정의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시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점을 말해 주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술의 참된 특징을 밝혀야 하는가? 세계 내의 존재인 인간은 세계 안에서 기술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관계를 규정하는 것도 바로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에서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기술이라고 정의하면, 이러한 정의로는 기술의 본질에 도달할 수 없다. 기술은 단지 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세계 구성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은 그저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세계를 열어 밝혀 주는 진리인 것이다. 다시 말해 기술은 탈은폐의 한 방식이다. 기술의 어원인 '테크네'는 본래 수공적인 행위와 능력만이 아니라 예술도 의미한다. 제작과 창작의 공통적인 성격은 '감추어져 있는 어떤 것을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내어 놓는 일'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해 잘 알아 그것을 해명해서 밝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탈은폐인 것이다.

이러한 탈은폐로서의 기술의 본질 규정은 현대 기술의 본질을 규정할 때도 여전히 타당하다. 단, 탈은폐의 방식이 다를 뿐이다. 현대 기술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탈은폐는 이제 더 이상 밖으로 끌어내어 앞으로 내어 놓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는 전개되지 않는다. 현대 기술의 탈은폐는 안에 은폐되어 있는 것들을 억지로 밖으로 끌어내려는 도발적 요청이다. 이는 자연을 비롯한 세계 일반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현대 기술은 자연에게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무리하게 요구한다. 과거에 농부의 일이란

농토에 무엇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려 싹이 돋아나는 것을 그 성장력에 내맡기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연을 도발적으로 닦아세운다. 이제 공기는 질소 공급을 강요당하고 대지는 곡식 공급을 강요당한다. ㉠과거 기술의 탈은폐는 현실을 현실로서 있도록 내버려 두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풍차의 날개는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며 바람에 전적으로 직접 자신을 내맡기고 있다. 풍차는 기류의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다. 반면 ㉡현대 기술의 탈은폐는 자연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를 채굴하고, 캐낸 것을 변형하고, 변형된 것을 저장하고, 저장한 것을 다시 분배하고, 분배된 것을 다시 한 번 전환해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것은 기술적 요구에 맞추어 자연을 끄집어내려는 도발적인 요청인 것이다.

이 도발적 요청은 세계에 있는 존재에 폭력을 가해서 강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때 자연은 자신의 고유한 본래적인 존재를 포기하고 단순히 에너지 공급자로서, 재료로서, 기능으로서 하나의 부품처럼 탈은폐된다. 온전하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품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연의 한 부분만이 드러나 보이게 되거나 또는 본질이 왜곡되기도 한다. 부품은 현대 기술의 도발적 요청에 따라 탈은폐되는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탈은폐를 수행하는 주체는 인간이다. 인간은 자연을 도발적으로 닦달하여 자연적인 것을 포함한 세계의 존재하는 것들을 부품으로 탈은폐시키는 주체이다. 더 나아가 탈은폐의 과정에서 이 과정의 주체인 인간도 하나의 부품으로 자신을 탈은폐시킨다. 주체가 객체로 전도된 것이다.

현대 기술이 수행하는 탈은폐의 방식으로는 기술이 잘못 드러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렇다면 기술이 어떻게 강요된 탈은폐가 아니라 본래의 탈은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술이 테크네로서의 탈은폐 그 자체로 돌아가서 스스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 주게 하면 된다. 기술과 예술 그리고 진리가 분리되지 않았던 그 기술로 돌아가면 된다. 예술적 의미에서 테크네는 참된 것에서 아름다움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근원적 의미에서의 예술은 최고의 탈은폐이다. 예술로서의 기술은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소리를 잘 듣고 이를 형상으로 가장 잘 드러낸다. 기술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테크네의 성격을 다시 갖게 되면, 비로소 기술은 자신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로써 인간과 기술 그리고 세계는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29. 위 글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기술의 본질에 대한 탐색 방식으로, 어원 분석 방법과 통시적 사례 비교 방법의 상충을 검증하였다.
- ② 기술의 본질 규정을 위해 수단과 행위 영역 사이의 차이점을 해명함으로써 문제의 소재를 명료히 하였다.
- ③ 기술이 자연에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바와 자연의 본성이 잘 드러나는 것은 비례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려고 했다.
- ④ 기술의 내재적 속성이 대상에 구현되는 과정에서 개입되는 인간의 창의성 정도에 따라 제작과 창작 능력을 차별화하였다.
- ⑤ 기술의 본질을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술의 본질이 왜곡된 상태에서 벗어나 기술을 그 자체로 이해할 것을 주장하였다.

3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연 에너지를 있는 그대로 저장하기 위해서 자연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한다.
- ② ㉡은 자연의 고유한 본래적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자연을 변형한다.
- ③ ㉡은 탈은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 테크네 개념을 확장한다.
- ④ ㉡은 ㉠보다 감추어져 있는 어떤 것을 더 온전하게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내어 놓는다.
- ⑤ ㉠과 ㉡은 자연이자 현실인 세계의 구성에 참여하고 있다.

31. 위 글의 논지에 따라 다음을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력 발전소가 강에 세워졌다. 이 수력 발전소는 강의 수압을 이용하며, 이 수압으로 터빈을 돌리게 되어 있고, 이 터빈의 회전으로 기계가 돌며, 이 기계의 모터가 전류를 산출해 내고, 이 전류를 송출하기 위해 육지의 변전소와 전선망들이 세워져 있다. 전력 공급을 위한 이처럼 얽히고설킨 맥락에서는 강 역시 무엇을 공급하기 위해 거기 있는 것처럼 나타날 뿐이다. 수백 년 동안 강의 양안을 연결해 주던 낡은 나무다리처럼 사람들이 강 물줄기에 수력 발전소를 세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 물줄기가 발전소에 맞추어 변조되었다.

- ① 수력 발전소는 인간이 강을 도발적으로 닦달하는 방식이다.
- ② 수력 발전소가 세워진 후, 강의 정체성은 수력 발전소라는 존재에 의해 규정된다.
- ③ 수력 발전소는 그 동력을 강에 의존하면서 강의 본래적인 가치를 증대시키고 있다.
- ④ 수력 발전소가 세워진 후, 강의 존재는 수압 공급자라는 기능으로 한정되고 있다.
- ⑤ 수력 발전소가 세워지기 전, 강은 자신의 본질과 다르게 존재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유럽의 거석 무덤은 지중해의 크레타와 같이 문명이 발달한 지역으로부터 주민의 이주나 아이디어의 전파에 의해 서유럽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가) 그러나 콜린 렌프류는 서유럽에서 새롭게 발굴된 신석기 시대의 여러 거석 무덤에 근거하여 이주설이나 전파설 대신 자생설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구 증가에 따라 자원과 토지가 부족해졌으며, 부족한 토지를 둘러싸고 공동체 간 경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거석 무덤이 등장하였다고 한다. 또한 평등한 친족 관계에 기반한 공동체의 취락은 산재한 형태로 분포했으며, 거석 무덤은 그 공동체의 구심 역할을 하면서 영역 표시의 기능을 했다고 한다. 특히 거석 무덤의 인골은 무덤을 축조한 친족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거석 무덤은 영역 내에서 제의를 통해 조상의 존재를 확인하는 기능을 하였고, 이를 통해 살아 있는 후손들은 그 조상의 땅을 소유하고 이용할 공동의 권리를 정당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그러한 기능은 점차 스톤헨지처럼 규모가 큰 제비용 거석 기념물이 대신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종교적 특수 계층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나) 한편 크리스 킬리는 연장자나 남성 가운데 일부 개인들이 친족 공동체에서 그들의 주도적 역할과 그 안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거석 무덤 및 그와 관련된 의례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일정한 육탈(肉脫)의 기간을 거친 공동체 구성원들의 유골 중 다시 갈비뼈와 같은 특정 부분만을 모아서 무덤 안에 섞어 놓아, 실제 존재한 경제력에 따른 권력 및 지위의 차이를 은폐하였다는 것이다. 거석 무덤은 당시 사회의 두 가지 사회 편성 원칙, 즉 친족 관계 내에서의 평등과 정치적 관계에서의 실제적 불평등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후자는 뒷날 시신을 직접 매장하는 개인의 단독 무덤을 출현시키는 토대가 되었으며, 동일한 구조의 무덤에서 성과 연령에 따라 시신이 놓이는 방향의 차이와 함께 부장품의 양과 질의 차이를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 존 바렛은 거석 무덤이 일상생활과 장례 의식 및 그 밖의 제의의 과정에서 갖는 역할에 주목하여, 당시 사람들은 거석 무덤의 축조 과정과 축조 후 그곳에서 행해졌을 장례 의식이나 기타 제의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규범을 형성하고 재확인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거석 무덤에서 치러지는 장례 의식 과정에서 살아 있는 사람들 사이의 지위와 의무는 죽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새롭게 결정되었다. 즉 장례 의식에서 거석 무덤의 출입구를 통해 조상들의 시신과 유골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하였고, 이러한 구별을 통해 재조정된 지위와 의무는 이후 지속적인 제의를 통해 살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한 번 정당화되고 기억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거석 무덤의 출입구를 막아서 무덤 내 시신과 부장품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거석 무덤은 기념물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상에 대한 기억을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화하여 영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거석 무덤은 산 자로 하여금 조상과의 관계를 매개로 자신의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라) 이안 호더는 유럽 중부와 서부 지역의 거석 무덤은 그 이전 또는 동시대의 집들과 형태나 내부 공간 구조에서 유사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농경이 중부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덜 비옥한 서유럽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경작에 적합한 토지가 부족하여 쟁기질 같은 새로운 농경 방식이 도입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남성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고, 몇 개의 혈연 집단이 느슨한 형태로 하나의 친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던 단계에서 남성 중심의 계보적 혈연 집단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특정 집단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한 집인 거석 무덤의 축조와 제의를 주도하였다. 이 과정에 여타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상으로 대표되는 '초월적' 권위에 기대어 토지 등의 상속에서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정당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32. (가)~(라)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견해는?

- ① 거석 무덤의 출현 배경으로 경제적 변화를 증시한다.
- ② 거석 무덤이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 ③ 거석 무덤의 축조를 통해 직계 혈연적 관계가 성립했다고 이해한다.
- ④ 거석 무덤에서의 제의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평등이 강조되었다고 본다.
- ⑤ 거석 무덤의 축조는 공동체 내에서 유력 개인의 등장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33. 거석 무덤의 축조 관습이 소멸되면서 나타났을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골을 추려서 이차적으로 매장하는 풍습이 사라졌을 것이다.
- ② 시신이 한곳에 집단 매장되는 대신 개별 무덤에 매장되었을 것이다.
- ③ 무덤의 구조와 부장품의 매장 방식에서 남녀의 구별이 나타났을 것이다.
- ④ 공동체의 제의가 수행되는 공간이 무덤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 ⑤ 주변의 다른 무덤에서 볼 수 없는 귀중품이 특정 무덤에만 집중적으로 부장되었을 것이다.

34. (가)~(라) 중, 다음 사례가 그 타당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영국의 어느 지방에서 거석 무덤이 발굴되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치를 통해 볼 때, 축조 시기는 지중해 지역의 거석 무덤보다 앞서고 중부 유럽의 것보다는 후대라고 판명되었으며, 형태와 구조는 후자와 유사하였다. 이 무덤에서는 출입구의 개폐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인골들이 확인되었다. 그 인골들에서 추출한 스트론튬 농도의 비교를 통해 이 무덤에 묻힌 집단 사이와 남녀 사이에 식단의 차이가 있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무덤 주위에서는 다양한 규모의 주거지 유적이 발견되었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 ④ (나), (라) ⑤ (다), (라)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절부절못하는 상태의 독재자, 걸어 다니면서 문고판 『리어 왕』을 읽고 있다. 주머니에서 파이프를 꺼내 한 손으로 파이프 속을 채우려 한다. ㉠ 한 손에 책, 다른 손에 파이프, 문 두드리는 소리. 독재자, 책상으로 돌아가 책을 집어 든 후 미소 짓는 연습을 한다. 늙은 연극배우 들어선다. 리어 왕 의상에 검은 외투를 걸쳐 입었다. 그를 극장에서 여기로 데려오기까지 옷을 갈아입을 시간적 여유를 안 준 모양이다.

(중략)

연극배우 요즘 관객들은 『리어 왕』 따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각하.
독재자 『리어 왕』 따위에 관심이 없다니 그럼 도대체 어떤 연극이 환영받는 세상이 되었던 말시오.

연극배우 ㉡ 『아가씨와 건달들』이지요.

독재자 뮤지컬 말시오? 난 차라리 『이수일과 심순애』를 보겠소.

연극배우 그것두 공연 중입니다. 『심수일과 이순애』로 바뀌었지만 …….

독재자 이렇게 집구석에만 갇혀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군.

연극배우 무사태평 태평무사하지요.

독재자 (부아가 치밀지만 억제한다.) 흥, 그렇겠구려. 나 같은 인간이 없어졌으니까.

연극배우 그렇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독재자 (더욱 부아가 치민다.) 오호.

연극배우 돌을 던질 적을 잃어버렸으니깐요.

독재자 적? 내가 그들의 적이었나? 흥, 그렇담 그 녀석들도 심심하겠군.

연극배우 그래서 아가씨와 건달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지요.

독재자 경박한! 그런 세상은 바람직하지 못해.

연극배우 그렇겠지요.

독재자 (어떤 실낱같은 희망) 진정한 역사의 심판은 세월이 지나 봐야 판가름 나게 되어 있지. 언젠가 당신들은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연극배우 글썩요. 지금 아가씨와 건달들에게 밀려나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은데요.

(중략)

독재자 “모르겠는데, 어디 내게 그걸 가르쳐 주렴.” …… 오늘 내가 당신을 초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소. 나는 당신이 연출하고 직접 리어 왕으로 출연한 연극을 보면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었소. 왜 관객들은 리어에게 열광하는가? 저 권력에 눈먼 독재자에게! 그리고, 왜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모양 이 꼴인가, 똑같은 입장인데!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소? 리어 양반, 난 결코 당신에게, 그리고 한때 나를 떠받치고 굽신거렸던 인간들에게, 지금은 모두 등 돌리고 날 욕하는 헛바닥들에게, 구차한 동정심을 얻고 싶지 않소. 난 자기 동정을 경멸하오! …… (한탄) 그래요, 음모자들은 결국 또 다른 음모에 의해 파멸되고 말지. 이걸 『리어 왕』을 읽지 않아도 우리의 지난 시대를 생각하면 하나의 역사적 공식이지. 말하자면 악인은

서로를 죽이지. 그러나, 덕이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지. “강력한 악이 오히려 비겁하고 나약한 선보다 나을 때가 있다. 웬 줄 알아? 나약한 선은 세상을 회의할 뿐이지만, 강력한 악은 희망을 제공해. 그건 강력한 에너지, 위대한 권력에의 의지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 니체가 한 말이오, 이걸!

연극배우 독서량이 대단하십니다.

독재자 왜 세상 사람들은 내 파멸에 즐거워하면서, 리어의 파멸에는 즐거워하지 못할까? 왜 인간들은 날 비웃으면서 리어는 비웃지 않는 것인가? 그가 정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이? 천만에! 그가 정의로웠다면, 나 또한 그랬소. 그러나, 통치자의 정의로움이란 게 얼마나 가당찮은 엉터리인 줄 아시오? 그건 결국 통계적 개념이오. 백성들 배불리 먹인 작자에게 정의는 돌아가게 마련이지. 리어의 통치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않는 거지? 그건 ㉣ 셰익스피어의 영리함 때문인가? 아니라면, 당신의 그 멋진 연기술이 리어를 정의의 인간으로 둔갑시킨 것인가? 당신은 관객을 리어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고 있었소. 리어는 희생자요 순교자다? 관객들은 리어에 대한 분별력을 잃고 객석에서 한두 시간 감동의 순간을 즐기지. 어떻게 리어가 권력을 잡게 되었고, 얼마나 힘들게 권력에 집착하였으며, 도대체 몇 개의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살았는지. 그래요, 통치자에게 ㉤ 가면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적을 처치하기 위해선 통치자는 온갖 기만과 위선과 증오를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뒤에 남는 것은 이 기만과 위선과 증오뿐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독재자들은 역사의 시궁창 속에 처박혔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리어 왕이었고 아마 수백 수천의 리어들이 세상의 소모품처럼 쓰여지고 비참하게 말년을 보내겠지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한 몸에 받으면서 …… 그런데, 왜 관객들은 리어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왜 관객들은 리어의 파멸에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연극배우 전 리어 왕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리어 역시 각하처럼 이렇게 불평을 터뜨리고, 세상을 원망하며, 세상에 대해 의혹을 갖습니다. 그는 후회하죠, 각하처럼.

독재자 그러나, 리어는 관객에게 사랑받고 감동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도, 차라리, 독수리에게 내 눈알이 파먹히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리어처럼 감동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싶소. 그 비결을 내게 전수해 주시오.

(중략)

독재자 내가 걸은 길은 리어와 똑같아, 이걸 비유가 필요 없을 지경이지. 내가 당한 배신과 모욕은 리어의 대사들 속에 모조리 들어 있단 말시오. 나는 오늘 밤 이 장면들을 당신과 연기해 보고 싶소.

연극배우 좋습니다, 시작하시죠.

독재자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건가? 병이란 말인가? 밤새 여행을 했던 말인가? 그건 순전히 구실이다. 그건 나를 등지겠다는 속셈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더 재치 있는 대답을 가지고 오라.”

연극배우 “폐하, 아시다시피 공작은 불같은 성격이시라 한번 침묵하면 요지부동입니다.”

독재자 “두고 보자! 염병에나 걸려라! 똬져라! 뭐 불같은 성격이라고. 이봐 글로스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 부부를 만나야겠다.”

연극배우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재자 “그렇게 말했다? 그대는 내가 한 말을 알아듣고 있나? 나는 지금 내 손으로 권력을 쥐어 준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야! 나한테 지킬 예를 다하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야. 나는 이렇게 박대받고 쫓겨날 수 없어. 두고 보자, 이 더러운 배신자들, 언젠가 손 좀 봐 주리라!”

연극배우 잠깐, 그렇게 진행된다면 『리어 왕』의 주제에서 벗어납니다. 리어의 주제는 권력의 무상함과 체념입니다. 리어는 퇴위하면서도 모두가 자기를 왕처럼 대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물려받은 자들은 누구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박대하자 놀랍니다. 화가 나서 저주하고 복수가 마음을 사로잡지만, 평민이 되어 버린 그에겐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한숨) 각하, 이제 무기력한 분노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깨닫고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 이윤택, 우리 시대의 리어 왕 -

35.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내에 고전적 연극을 패러디하여 활용함으로써 고전의 권위를 해체하고 있다.
- ② ‘밤’과 ‘실내’라는 제한된 시공간 배경을 통해 극 중 현실의 비현실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③ 독재 권력에 대한 논평으로 일관하고 있어 인물의 내면적 갈등 구조가 부각되지 않는다.
- ④ 극의 지배적인 줄거리를 지연하거나 역행하는 이야기를 개입시켜 극의 중심 내용을 분산한다.
- ⑤ ‘독재자’에게 순응하면서도 그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연극배우’를 통해 연극의 사회 비판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36. 위 글에서 ‘리어’에 대한 ‘독재자’의 생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리어는 독재자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 ② 리어는 기만과 위선과 증오로 가득 찬 통치자이다.
- ③ 리어는 권력의 무상함을 깨달아 감동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 ④ 리어는 질투심과 선망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 ⑤ 리어는 본모습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동정받는다.

3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지식과 권위를 상징하는 동시에 인물의 안정적 심리를 암시하는 소도구
- ② ㉡: 연극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동시에 세태와 민심 변화를 암시하는 소재
- ③ ㉢: 인물의 현학적인 성격을 보여 주는 동시에 극작가의 사상을 대변하는 존재
- ④ ㉣: 창조적 정신을 대변하는 동시에 권력에 저항하는 지식인 작가의 전형
- ⑤ ㉤: 인물의 또 다른 자아를 암시하는 동시에 내면 속의 갈등과 증오를 해소해 주는 수단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슈페터의 경제 발전 이론에 따르면, 경제 발전이란 인구 증가, 자연계의 변동, 전쟁 등 경제 외부로부터 온 충격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 범주의 태내에서 생긴 동인으로 인해 주도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변혁하여 나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경제는 동물 유기체의 혈액 순환과 같이 매년 같은 경로를 반복해서 돌고 있는 순환적 흐름의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혈액 순환은 유기체가 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에서 그 크기가 변하지만, 그것은 동일한 경로 내에서의 연속적인 작은 변화들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경제는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기존의 순환적 흐름의 경로를 비연속적으로 변경한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를 경제 발전이라 부른다. 경제 발전은 순환 경로의 변경이며 새로운 균형으로의 이동이기 때문에, 기존의 균형 상태를 완전히 바꾸고 대체한다.

순환 경로의 비연속적인 변화와 균형 이동은 산업 생활과 상업 생활의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는 최종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망의 영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소비자의 기호에 자생적이고 비연속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업가의 점진적 적응 이외에 순환 경로의 비연속적 변화를 낳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의 기호 및 그 변화는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물론 경제학의 출발점은 소비자의 욕망 충족이 모든 생산의 목적이라는 것이며, 주어진 경제 상황은 언제나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소비자의 욕망은 독립 변수일 수도 있고 경제 순환의 근본적 힘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시스템에서의 혁신은 새로운 욕망이 먼저 소비자 측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후에 생산 기구가 그 압력을 받아 전환하는 식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 발전의 주도자는 생산자이며, 생산자들로부터 소비자는 새로운 상품, 혹은 종래부터 써 왔던 상품과는 다른 상품을 쓰도록 교육받는다.

생산을 한다는 것은 사물(materials)과 힘(forces)이라는 생산 요소를 결합하는 것이다. 다른 상품을 만들거나 동일한 상품을 다른 방식으로 생산한다는 것은 이들 생산 요소를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이를 흔히 신결합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결합이 단지 기존의 결합 상태에서부터 연속적인 적응 과정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장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새로운 현상이라거나 경제 발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 신결합은 비연속적으로 나타나고 경제 발전을 특징짓는 현상도 이때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신결합은 이런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며, 경제 발전은 바로 ㉠ 이러한 신결합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결합의 수행자는 신결합에 의해 배척되는 구결합에서 상품의 생산 과정과 상업 과정을 통제하고 있던 사람들과 동일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신결합을 구현하는 기업과 생산 공장 등은 일거에 낡은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것과 함께 나타난다. 왜냐하면 낡은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대안진을 수행할 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결합의 수행이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결코 이용되지 않았던 생산 요소를 활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매년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생산 요소의 증가는 그 자체가 극히 적을 뿐 아니라 기존의 경제 순환의 양적 확장에 의해 흡수되기 때문에,

신결합에 따른 필요를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신결합에 필요한 생산 요소는 구결합에서 전용(轉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경기 변동의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낡은 경영을 도태시킨다. 19세기 후반의 세계 경제를 변화시킨 것은 저축과 이용 가능한 노동량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생산 요소의 전용이었던 것이다.

38.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 ① 균형 이동을 통하지 않아도 경제 발전은 일어난다.
- ② 경제는 순환 경로 내의 점진적인 변화를 겪지 않는다.
- ③ 경제 시스템에서의 혁신이 상업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 ④ 경제 발전은 경제 외부로부터 일어나 경제 내부로 파급된다.
- ⑤ 저축이 늘어난다고 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39. 위 글을 바탕으로 바르게 추론한 것은?

- ① 민간 소비의 증가는 순환적 흐름의 규모를 변화시킨다.
- ② 경제 순환에서는 생산이 먼저 변해야 그에 따라 소비가 변한다.
- ③ 기술 체계의 변혁과 동시에, 재래 기술을 이용하는 공장도 대체된다.
- ④ 소비자의 기호가 비연속적으로 변하게 되면, 경제 발전이 일어난다.
- ⑤ 경제 시스템에서의 혁신은 경제 발전 담당 주체의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다.

40.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동력 방직기의 도입으로 직물업자는 초과 이윤을 획득하였다.
- ② 숙련 노동자의 부족으로 부품 표준화를 채택한 제조업이 발달하였다.
- ③ 조립 라인의 증설로 몇몇 자동차 생산업체는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였다.
- ④ 강한 견인력을 가진 증기 기관차의 등장으로 기차가 역마차를 대체하였다.
- ⑤ 목탄 가격과 석탄 가격의 변화 때문에 코크스 제련법이 도입되어 철강 생산량이 증대되었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